

2017년 10월 18일, 한경면 낙천리 저거흘못 정자, 이효순 조사.  
 조성동(남, 1940년생, 한경면 낙천리)

- 줄거리: 딸을 시집보낼 때 이불을 만들기 위해 마을마다 목화를 많이 갈았다. 하루는 잔 꾀가 많은 할아버지가 따뜻한 빵이 먹고 싶었다. 마침 산간에 바구니 한 가득 따뜻한 빵을 지고 팔러 오는 아주머니가 있었다. 할아버지는 일부러 목화가 가득 피어 있는 남의 목화 밭 앞에 서 있었다. 할아버지는 거짓으로 밭주인 행세를 하며 아주머니에게 빵값만큼 목화를 많이 따서 가져가라고 하고선 빵 한 구덕을 다 먹었다.

**[제보자]** 어떤 사기꾼 하르방이 하나 셨인디. 옛날은 배 고픈 때난 빵장시 아지망들이 산간에 가끔 들려. 집어서 뜯뚱하게 빵 멘들아그네 빵 풀레. 아, 그 하르방이 생각해 보니 빵은 기름고 물물교환을 해야 뛰겠다 궁리를 헤연.

옛날엔 멘헤렌 목화. 주로 많이들 갈았주기. 뚫덜 시집 보내젠 허믄. 놈이 밧, 큰큰헌 밧, 목화밧 앞이 간 섯어 그 하르방이. 빵장시 올 동안  
 “아지망, 정 뎅기는 것이 뭣이우꽈?”

“이거 빵이우다.”

그 아지망이

“아저씬 그거 집잇 밧이우꽈?”

경 허난

“이거 우리 밧.”

놈이 밧디 사가지고서. 목화꽃이 만발했어. ‘야, 이거 부자 하르방이로구나.’

“빵이랑 나 먹커메 아지망이랑 이거 우리 목화메 이거 실컷 탕 가져갑서.”

**[조사자]** 땅 가정 가 불렌?

**[제보자]** 아니, 빵 값으로. 놈이 목화로. 옛날 하르방덜 앗이민 혼 구덕 다 먹어불어. 우리 동네도 우동 아홉 그릇 먹어난 사람 신디. 그거 보그락헌 거 혼 바구니. 그 하르방 거 다 먹어불언.

“나 먹은 거만큼 멘헤 탕 가.”

허난 그 아지망도 수지 맞고.

- 핵심어: 빵, 목화꽃, 목화밧(목화밭), 사기꾼, 멘헤(목화), 구덕(바구니), 아지망(아주머니), 빵장시(빵장수)